

연중 제 32 주 일

기도서 P. 473 A해

제1독서 (지 서6, 13-17)

제2독서 (데살로 4, 12-18)

복 음 (마태오 25, 1-13)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내가 갈곳은...

서 석 구 신 부

오늘 복음의 비유는 하늘 나라를 들어가는 데에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되는 내용을 현명한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등장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누가 먼저 죽고 뒤에 죽는 시간적인 차이 뿐이지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자기는 죽음과는 관련없이 오래오래 살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죽음앞에 자기의 죽음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어데서 왔는가? 또 어데로 갈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항상 묵상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날 젊은 학생이 성직자를 찾아와 배움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정이 하도 딱하여 도움을 했습니다. 성직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법과대학을 나와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는 법무장관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싶다. 성직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문이 막혔을까요? 그것은 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인 돈·지위·명예를 다 얻었을 때 이미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직자가 계속해서 묻는 것은 인생의 과정에서 얻을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목적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운명의 마지막 종점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을 지켜보면서 우리 또 한번은 가야할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의 삶에 억척을 부리는지 묵상해볼때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를 보람있게 지낸 사람이 편안한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닥쳐왔을때, 항상 준비한 사람의 죽음은 등잔을 들고 밤새도록 신앙을 기다리는 처녀가 신앙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현명한 다섯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말씀은 우리의 최종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문중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시오. (마태 25, 12-13)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마태 10, 32-33)

(합월 전주교 주임신부)



초대합니다

가슴과 홍수, 병충해와 싸우면서 수확한 우리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헤아려 보는 계절입니다. 한포기 벼라도 더 뿌리를 적셔 주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댓가는 얼마이겠습니까? 농민의 피와 땀의 댓가는 흔히 값없이 취급당해 왔습니다.

본회는 농가소득의 주요 원천인 쌀만이라도 제값을 찾아야겠다는 뜻에서 4년째 쌀 생산비를 조사해 오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농정당국, 국회 언론등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언넌히 농민대회를 열어 추수감사제와 함께 널리 농민의 의사를 모으고 표현하는 순수한 농민의 광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 대회는 의례적 행사가 아닙니다. 농민의 마음이 뜨겁게 고취되고 소용돌이 치는 광장입니다. 그러기에 해를 거듭하면서 그 열기와 규모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추수를 해놓고 무거운 마음의 농사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느님의 은혜로운 추수에 대해 감사하며 농민이 받아야 될 노력의 댓가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따져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해동안 겪었고 해결을 위해 몸부림쳤던 현실적인 농민문제와 활동들을 들추어 평가하므로써 농민의 진취적인 노력을 고무하고 농민의 지혜와 역량을 진작시키는 통로를 강화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농민형제 여러분!
올 추곡수매가는 일단 발표되었지만, 농민의 의사는 표현되어야 하고 후련에도 계속 쌀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허물없이 만납시다. 우라 들만의 마음과 마음을 나눕시다. 그리고 앞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뜻을 모아봅시다.

여기 가난한 농민들의 모임에 뜻있는 분들의 동참과 성원을 진심으로 열망하며 삼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78. 10.

한국 가톨릭 농민회

숲 정 이 산 책

먼저
가신분들

위하여
기도
합시다





알고있습니다.

전 다미아노

식어가는 태양아래
녹이진 양심의 행열
누군가 나에게 같이가지고 얘기한다.

행열속에 낀 누구는
발 맞추기가 힘들어
죽어가는 달빛아래서
비실비실 말타가는 세상을 보고
마지막 한숨을 토한다.

짜늘하게 식어버린 별들은
그래도
길은 색상을 발하고 싶어
그리스도의 피땀보다 길은
피땀을 좇는다.

누군가가 또 얘기한다
아름다운 아버지가 되어 보았는래도.....
타다가 끼지는 불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지피는 불꽃이 아니라
고삐가 풀린 황소가
저 넓은 대지를 뛰어다니다
육중한 새끼를 쳤어라. 라고
(판베루알 성 프란치스코회)



낙엽의 기도

손 용 철(안드레아)

오 마리아님!
가난한 이의 어머니여
낙엽지는 성당 뜨락에 당신은 홀로 서 계십니다.
떨어져 주위에 흩어진 낙엽들을 내려보시며,
두손 모우신 당신의 두눈엔 측은한 빛이 흘러내립니다.
나도 한 잎 맥마른 잎새되어 당신앞에 서 있습니다.

에덴동산 생명수 가지에 한 잎 싱그럽던 이 몸
태양 빛 외면하고 헛된 꿈 푸폴리다 푸르름 잃어
소슬바람 흩먼지 회오리속을 떠도닐던 길잃은 잎새.
어둠 빛 검은 기류속에
영혼을 뼈속 깊이 까맣게 물들이고
허영과 이기의 술잔위에 스스로 썩어가던 어리석은
인간 낙엽!
오오 마리아님, 보소서 굵어보소서.

한줄기 끌어주는 빛 따라 당신의 발 아래 홀로 섰습니다
지나간 내 그림자 되돌아보며 누우쳐
샘 솟는 하얀 눈물로
진긴발 지새도록 주님의 제단위에 촛불 밝혀
이 몸 바치리니
오! 마리아님, 자비로운 어머니여.....
찬란한 빛 넘치는 그 동산 그 나무가지에,
그 푸른 잎 새로
주님 위해 찬미노래 읊조리는
한 잎 낙엽(落葉) 아닌 낙엽(樂葉)되게 하소서.
(부안 천주교회 청년회)



이 가을에...

김 규 원

이제 한해를 거둬하는 계절이 깊어 갑니다.
당신도, 나도, 그리고 모든 이들이 정성들여 심고, 땅
흙며 가꾼 결실들을 거두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벅찬 계절
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람으로 하여 이 계절을 맞으시
는지요.

지난 한 해, 무척이나 어렵고 험기증나는 사건들이 우
리네를 어지럽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발길에 채여 노상(路上)에 버려지고,
그 엄청난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정도로 끝나
고- 교단에는 가짜 선생이 가짜 자격으로 진짜같은 교
육을 했을 것 같지 않게 생각되고- 뭐라든가 하는 평
장하신 채벌의 아파트가 쓸 것 없는(?) 신문을 쓸 것
있게 해주더니, 요즈음은 L. P가스라던가 하는 있는 분
네들 델감이 "팡!", "팡!"하고 터져 부수고 죽이고 하
는가하며, 무슨 소득세법 개정안에 15%가 국회라는 곳
에서 설왕 설래하다가 흐치 부지 그렇게 저렇게 좋은 사
람들 더욱 좋게하여 매듭되고, 세상의 독특한 분네들이
서로 「손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알랑거리는가 하면, 심
으려서 심은 그 「노풍」인가 하는 신품종(?)에 얻어 맞
은 농민은 비료값, 농비 한푼 못 건지고 농약에 절여 질
승도 못 먹일 벗질만 옮겨주고 하늘을 우렐어 탄식하는
이 아픈 가을의 의미는 당신도 나도 모르는, 오직 한 분
이신 하느님만이 아실 듯 싶습니다.

정녕 풍성한 계절이 되지 못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
리는 서로 긴장하고 움추릴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짧은 지식에 없는 숨씨나마 썩 보려는 이 글이 원갓
범주를 망각한 수(數)를 모를 법이라는 태두리에 걸려
그나마 덤칫 거리기를 수습반-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쓰기도, 걸기도 모두가 어려운
일들 뿐입니다.

차라리 소망하는 것은 옛 이야기에 나오는 노래하는
갈대밭에 나가 구명을 파고 실컷 "임금님 귀는 당나귀"
라고 외쳐보고 싶습니다.

이 가을을 보내면서 생각나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
매를 맺을 수 없다!"(마태오7, 17~18)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귀를 통하여 가슴까지 아프게 닿아 주기를
바랍니다.

(임실 천주교회)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러판매
본사지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지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② 3032 이리 8629

한 동 암 (모이세)



추 사 이 망(追思已亡)

—소리갯재에 묻힌 나의 님

김 병 엽 신부

함박눈이 곱게 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바보가 있을까? 눈이 내리는 날이면 북실북실한 변견(便犬)도 좋아라 이리 저리 정신없이 뛰며 야단이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 설리고 이십리고 무턱대고 눈을 맞으며 걷는다는 함박눈.

내가 국민학교 6학년때까지 9남매의 막내라는 특전때문에 어머니 옆에 자면서 다 말라붙은 어머니의 젖을 만지곤 하였었다. 때로는 잔지럽다고 하시면서 나의 손을 내치기가 무섭게 다시 어머니의 젖무덤을 더듬었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입학하고난 다음부터는 감히 그러지 못하였다. 불과 1년 차이였는데, 왜 그랬을까?

국민학교 6학년때에 불교도들이 사용하는 108열주를 목주로 만들어 어머님께 드렸더니, 신부가 되고난 다음 나에게 다시 주시면서 성인(聖人)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에 세구미(15단)씩 성모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신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교 규칙을 지켜보겠다고 그 마음가짐도 흰머리칼이 휘날리는 어머니의 기도의 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2년전부터 소리갯재에 고이 누워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내리치는 날이나 차디찬 함박눈이 오는 날이면, 어머니 위엔 눈이 내리기 때문에 나는 함박눈도 싫다.

교회에 봉사할 사람은 한 발을 내디디라고 하신 교회(주교)의 말씀에 한발을 내디디고 었드려 있을 때, 성인 열품도문의 노랫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그 특이한 기침소리가 나의 고막을 울렸다. “어머님, 서울은 전주보다 훨씬 추게 오시지 마세요”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렸었는데... “오시지 말랑게...”

폭 폭 솟아나는 모성애가 추위를 이기셨구나... 조바위를 쓰고 오셨는지, 아저라 분심말도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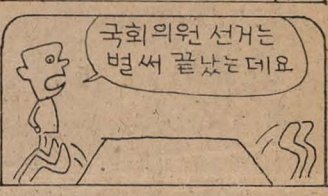
어버이 살아계실때 효성을 다하라는 총강 정철 선생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던 나였지만, 내 어머니를 쉽게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바보인 나. 본당에 혹시나 오시면 이불장과 옷장을 열어보시며 여려가지로 마음을 쓰시던 어머니. 그러나 교우들이 싫어할세라 한 끼 식사하시면 은근히 집에 가지기를 바랐던 육시할 나. 그래야 부모형제를 끊어버리는 줄 알았던 친치인 나.

2년전 10월 어느 주일에 들렸던 청천벼락 소리같은 어머니의 별세 전보. 임종마저 지켜보지 못했던 불효자인 나. 세상에 태어나 호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영 가시게 하였구나...

가을도 깊어가는 지금, 저 소리갯재의 어머니 무덤에는 은빛 갈대만 나부끼겠지. 주여, 내어머니를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수류 본당 주임신부)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돕는 성금...고산 본당 교우들 11,060
고산공소회장 유신 5,000원

요심이 (276) 김병오



□개업안내
둔율동 천주교 입구에 유미 미용실 설치 교우 여러분의 성원 바람
유미 미용실
대표: 최완선(울리바)
전화 ㉠ 3693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소아과 전문의 □
군 산 김 정 승 소 아 과
□ 영동파출소에서
개복동교회 중간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파 티 마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파 제과점 옆)
전화 ㉠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아크릴·아취·실내장지·각종간판
페인트·집합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 1585
◎ 감초당 약국 앞

★ 양심을 찾자 ★
현대 칼라 특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 앙 사 진 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축! 이상호 신부님 회갑-11월 30일(목) 상관 성당에서 축하 미사: 오후 2시, 축하식: 오후 3시, 축하연: 3시 30분
 - 제 2지구 확대회의-11월 14일(화) 오전 10시 둔율동 성당 신부님, 사도회장, 재정부장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성령 기도...매주 (목) 오후 8시 가톨릭센터 ※ 성령세미나 받으신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한국 가톨릭 농민회 주최 강원지역(13일·원주), 중부지역(16일·대전), 영남지역(21일 함창), 호남지역(27일 오후 2시-28일 정오, 광주 계림동 성당)
 - 제 6회 베밀 섬서연구 강습회 안내-1979년 1월 29일(월)~2월9일(금), 비용: 60,000원, 신청기간: 10월 1일~11월 30일, 자격: 신부, 자세한 문의는 교구청 법석규 신부님께 신청절차: 본회 소정 신청양식에 의거 접수함(연락처: 서울 중앙사서함 1239호) 전화 22-4993
- 평신도의 날 특별헌금 있습니다-11월 19일
-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들을 위한 성금-고산 11,060원, 음수동 유신회장 5,000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북
보좌 신부	정 승 현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기 복

- 새 사제관 비품 헌금
조 마리아(2,000), 조 마리아-카렌, 기타
- 지난주 봉헌금: 128,230원

- 꾸리아: 12일(일) 오후 2시
 - 밀린 교무금 납부를 바랍니다
 - 혼인 성사 받으실 분들은 한달전에 본당 신부와 면담 하세요
 - 봉헌금과 영성체는 앞좌석에서 부터 합시다
 - 전례담당
12일: 복사-오중원, 김한영, 해설-양학도
19일: 복사-김영춘, 안재홍, 해설-임주택
- 지난주 봉헌금: 177,851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택
사도 회장	박 장춘

- 선교주일: 10시 미사후(L.M 간부회)
 - 반상회 및 가정방문: 5반-14일, 6반-15일
7반-16일, 8반-17일
- 지난주 봉헌금: 42,560원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권
사도 회장	이 강노

-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의실)
 - 가을 판공 12월초 예정
판공전에 신자의 모든 의무를 마쳐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판공성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설가 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중고생 미사: 매주 토요일-오후 7시, 미사후 교리
 -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오후 3시, 미사후 교리
 - 청년회 회합: 주일 오전 8시 50분, 꼭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99,21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철
보좌 신부	이 순성
사도 회장	유 석중

- 차모회·성화회: 10시 미사후
 - 장우회: 저녁미사 후
 - 성 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 가정 심방: 전동, 경원동
 - 신학교 지망생 교육: 19일(노송 피정의 집)
 - 분실물 보관소: 해설대 서랍
- 지난주 봉헌금: 163,100원 교무금: 258,800원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 신부	문 정현
사도 회장	채 수현

- 사도회 및 구역장 임시총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회의실)
 - 에비자 교리반 안내: 성탄 영세 준비 교리반에 많은 에비교우를 안내합니다
 - 부녀회 모임: 주일 10시 미사후(회의실)
"미사 끝난후 집에 먼저 돌아가는 시합은 없습니다"
 - 바오로회 조직: 젊은 청장년은 모두 회원이 됩시다
 - 교무금: 판공전에 교무금을 완납해야지요?
금주 납입자: 이동주(4만원), 강순례(1만원)
황희상(7천원), 윤영섭(5천원), 박덕희(4천원)
김용암·송영준(3천원), 남길례·하성운·송삼례·양희용(각 2천원), 오베드루(8백원), 권정자(5백원)
계 81,300원
- 지난주 봉헌금: 36,840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 권 아	영 회 록
보좌 신부	김 영 성	
사도 회장	김 영 성	

-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각 분과 위원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선교분과와 전례분과 위원은 전원 참석하세요
 - 자모회를 조직 합니다: 다음주(19일) 공식미사 후
본당내 자모님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등 학생 설가연습: 매일 저녁 7시반
- ※ 축! 결혼: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신랑-최 요안군, 신부-백 세시리아양
- 지난주 봉헌금: 70,45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 중고생 설가 연습 및 미사: 토요일 저녁 5시 30분
 - 다음주(목): 전당리 공소 저녁 7시
 - 각 공소 판공일정: 판공대비 চাল고준비 바랍니다
내동리-11월 28~29일 동산촌-30~12월 1일
미산리-12월 4일~5일 전당리-7~8일
 - 밀린 신축 헌금 및 교무금은 다음주 까지 납부 바랍니다
어려운 살림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유아세례: 17일 오전 10시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79,011원

(북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택
사도 회장	조 성로

-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 유 기순 형제님의 회갑을 축하합니다
축하미사 오늘 10시
- 추수감사 합동미사: 다음주일 공식미사 (11월 19일)
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사도회 연중 사업계획 실천 평가회
11월 19일(일) 공식미사 후
- 봉헌금(교무금) 미수가 너무 많아 본당 운영에 어려움이 큼니다. 속히 완납 바랍니다